

<2019 계리직 채용 가답안 A책형 기준>

1	2	3	4	5	6	7	8	9	10
④	③	②	①	③	②	③	④	③	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③	④	③	②	①	④	②	②	한자	

< 총평 >

전체적으로 매우 난도가 높은 문제들로, 7급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고난도로 분류되는 문제들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특히 4번 문항(위두 파견과 아시촌 소경 설치 사이 시기의 사건)과 13번(지역사) 문항은 해당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소거법으로도 풀기 어려운 매우 난도가 높은 문제이다.

최근 몇 년 사이 다른 직렬의 기출 문제들을 참고한 것으로 보이는 문제들이 다수 보이는 것도 특징이다. 포상 8국(19년 경찰1차), 시정전사과 사료(19년 국가9급), 복호(17년 기상9급) 지문은 물론, 동국통감(17년 기상7급), 문왕 대의 사건(17년 국가9급 추가채용), 칠천량 해전(18년 지방9급) 등의 내용에서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다. 그 외에 안향의 인물사 문제, 농지개혁법, 30년대 무장투쟁 관련 문제들도 최근 여러 직렬에서 출제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주제들이다.

고난도 문제지만 수험 한국사 내용 안에서 소거법을 통해 풀 수 있는 문제들도 보인다. 6번 문항의 경우 장보고 관련 대표적인 사료인 엔년의 '입당구법순례행기'를 통해 시기 유추가 가능하고, 왜란 순서 문제의 경우 주요 사건을 임진왜란 때의 사건 / 휴전 협상 중의 사건 / 정유재란 시기의 사건으로 내용을 구분해 소거법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가능하다. 대장경 조판 시기 관련 문제도 해인사 장경판전의 건축 시기(조선 전기)를 통해 정답을 유추하는 것이 가능한 문제였다.

1. 정답 ④

[자료 분석]

(가)는 신석기 시대의 빗살무늬 토기, (나)는 청동기 시대의 탁자식 고인돌 모습이다.

[정답 해설]

- ㄱ. 신석기 시대에는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었으며 점차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 ㄴ. 청동기 시대에는 청동기 제작과 관련된 전문 장인이 출현하였다. 또한 농경의 발달로 잉여 생산물이 생기고 사유 재산제

와 계급이 발생하여 빈부의 격차가 발생하였다.

[오답 피하기]

- ㄷ. 주먹도끼, 스페찌르개, 뚜르개, 짝개 등의 석기를 사용한 것은 구석기 시대이다.
- ㄹ. 청동기 시대 한반도에서는 주로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하천이 흐르는 배산임수 지역에 집을 짓고 살았다. 강가나 바닷가에 마을을 이루고 살았던 것은 신석기 시대이다.

2. 정답 ③

[자료 분석]

제시문은 광개토대왕릉비의 일부로, (가)는 고구려 광개토대왕, (나)는 신라에 해당한다.

[정답 해설]

- ㄱ. 신라 왕도(경주)의 호우충에서는 호우명 그릇이 발견되었는데 그릇 밑받침에 광개토대왕의 왕호가 포함된 '을묘년국강상광개토지호태왕호우십(乙卯年國岡上廣開土地好太王壺杆十)'이라는 16자의 명문이 새겨져 있었다.
- ㄴ. 광개토대왕릉비에는 광개토대왕의 정복 활동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중 광개토대왕이 직접 군을 이끌고 백제를 토벌해 아단성 등 58성 700촌을 획득했다는 내용이 등장한다.
- ㄷ. 포상 8국은 골포국, 칠포국 등 낙동강 하류 지역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8개 나라이다. 신라 나해이사금은 포상 8국이 가야를 침입하자 군대를 보내 가야를 구원해주었다(209).

[오답 피하기]

- ㄹ. 왜의 아스카 문화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친 나라는 백제이다. 신라는 일본에 제방 쌓는 기술과 조선술을 전파하였다.

3. 정답 ②

[자료 분석]

(가), (나)는 부여의 풍속에 대한 내용이다.

[정답 해설]

- ② 부여에서는 전쟁을 할 경우에 소를 잡아 그 발굽을 살펴 길흉을 점치는 우제점법의 풍속이 있었다.

[오답 피하기]

- ①은 삼한, ③은 고구려(부여의 제천행사는 12월의 영고), ④는 옥저의 풍속에 대한 내용이다.

4. 정답 ①

[자료 분석]

(가)는 내물마립간 대의 전진 사신 과견(382), (나)는 지증왕 대의 아시촌 소경 설치(514)에 대한 내용이다.

[정답 해설]

② 복호는 내물마립간의 아들이자 눌지마립간의 동생이다. 그를 고구려에 볼모로 보낸 것은 실성마립간 때인 412년이다.(삼국유사에는 복호를 눌지마립간 때인 419년 고구려에 볼모로 보낸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③ 나을에 신궁을 설치한 것은 소지마립간 때인 487년이다. '나을은 시조(박혁거세)가 태어난 곳'이라는 기록으로 보아 박혁거세 탄생 설화에 등장하는 나정(蘿井) 유적지 부근으로 추정한다.

④ 상복법을 제정해 반포·시행한 것은 지증왕 때인 504년이다.

[오답 피하기]

① 실직국과 압독국을 정복한 것은 파사이사금 때인 102년이다. 실직국은 현재의 강원도 삼척, 압독국은 현재의 경북 경산시에 있었던 소국이다.

5. 정답 ③

[자료 분석]

제시문은 원효가 저술한 『대승기신론소』의 일부이다.

[정답 해설]

③ 원효는 모든 것이 한마음에서 나온다는 일심 사상을 바탕으로 종파 간 사상적 대립을 조화시켰다. 또한 분파 의식을 극복하고자 화쟁 사상을 주장하였다.

[오답 피하기]

- ① 대국통이 되어 신라 불교를 총괄한 인물은 자장이다.
- ② 원측에 대한 설명이다. 그는 현장이 인도에서 호법계통의 신유식학을 갖고 당으로 돌아오자 이를 수용하여 전파시켰다.
- ④ 의상에 대한 설명이다. 그는 화엄 사상 전파를 위해 교단을 형성하여 많은 제자를 양성하고 부석사·낙산사를 비롯한 여러 사원을 건립하여 불교 문화의 폭을 확대하였다.

6. 정답 ②

[자료 분석]

제시문의 공주는 정혜공주(문왕의 둘째 딸), (가)에 해당하는 국왕은 문왕이다. '대흥', '보력' 등의 내용을 통해 이를 알 수 있다. 문왕의 재위 기간은 737년에서 793년이었다.

[정답 해설]

① 독서삼품과는 신라 하대 원성왕 때인 788년에 실시되었다. 이는 유교 경전의 이해 수준을 시험하여 관리를 채용하는 제도였다.

③ 발해 문왕은 762년 당으로부터 발해 국왕이라는 칭호를 받았다.

④ 안록산과 사사명의 난(안사의 난)은 755년에서 763년에 이르기까지 약 9년에 걸쳐 일어났다.

[오답 피하기]

② 일본 승려 엔닌이 구법을 위해 당으로 건너간 것은 838년의 일이다. 그는 여행 기록을 담은 『입당구법순례행기』를 저술하기도 했다. 『입당구법순례행기』에 장보고가 세운 법화원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는 것을 통해 9세기에 활동한 장보고와 동시대 또는 그보다 후대의 인물임을 알 수 있다.

7. 정답 ③

[자료 분석]

제시문의 (가)에 해당하는 것은 전시과(시정전시과)이다.

[정답 해설]

③ 시정전시과는 광종 때 제정된 자·단·비·녹의 4색 공복 제도를 기준으로 문반, 무반, 잡업으로 나누어 지급 결수를 정하였다. 관직의 높고 낮음과 함께 인품을 반영하여 토지를 지급했으며 산관도 지급 대상이었다.

[오답 피하기]

- ① 5품 이상 고위 관료에게 지급된 세습 가능한 토지는 공음전이다. 전시과 제도는 경종 때(976) 제정되었다.
- ②는 문종 때의 경정전시과(1076), ④는 목종 때의 개정전시과(998)에 대한 내용이다.

8. 정답 ④

[정답 해설]

- ㄴ. 행주대첩은 1593년 2월에 전개되었다.
- ㄷ. 훈련도감은 1593년 8월 유성룡의 건의로 설치되었다.
- ㄱ. 왕실 서얼 출신인 이몽학은 1596년 반란을 일으켰으나 전세가 불리해지자 부하들에게 피살되었다.
- ㄹ. 1597년 7월 있었던 칠천량 해전에 대한 내용이다. 당시 조선 정부는 패전 보고를 듣고 크게 놀라 백의종군하고 있던 이순신을 다시 삼도수군통제사로 임명해 수군을 수습하게 하였다.

9. 정답 ③

[자료 분석]

제시문은 재조대장경(1236~1251)을 조판하며 올린 글로, (가)는 몽골의 침입(달단은 몽골을 의미), (나)는 현종 때 있었던 거란의 2차 침입(현종 2년, 1010)에 대한 내용이다.

[정답 해설]

- ① 초조대장경은 현종 때인 1011년부터 선종 때인 1087년까지 70년에 걸쳐 이루어졌다.
- ② 교장 간행은 선종 때인 1091년부터 숙종 때인 1101년까지 10여 년에 걸쳐 이루어졌다.
- ④ 대구 부인사에 보관되어 있던 초조대장경이 몽골의 침입 과정에서 소실되면서 재조대장경을 조판하게 되었다. 제시된 사료의 '중략'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그들이 경유하는 곳마다 불상과 범서를 마구 불태워 버렸습니다. 이에 부인사에 소장된 대장경 판본도 또한 남김없이 태워 버렸습니다. 아, 여러 해를 걸려서 이룬 공적이 하루아침에 재가 되어 버렸으니, 나라의 큰 보배가 상실되었습니다. 제불다천(諸佛多天)의 대자심(大慈心)에 대해서도 이런 짓을 하는 데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오답 피하기]

- ③ 해인사 장경판전은 조선 전기(15세기)에 축조된 건물로, (가), (나) 사이 시기의 사실로 적절하지 않다.

10. 정답 ①

[자료 분석]

(가)에 해당하는 책은 성종 때 완성된 『동국통감』이다. 범례는 『자치통감』에 의거한 것과 삼한 이상을 '외기'로 칭한 것, '신라기'를 독립시킨 것 등을 통해 이를 알 수 있다. 삼국 이전을 외기로 처리한 것은 자료 부족으로 체계적인 왕조사 서술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신라기를 독립시킨 것은 신라 통일의 의미를 부각하기 위함이다.

[정답 해설]

- ① 『동국통감』은 서술 체제가 편년체로 되어 있으며, 단군조선에서 삼한까지를 외기(外紀), 삼국의 건국으로부터 신라 문무왕 9년(669)까지를 삼국기, 669년에서 고려 태조 18년(935)까지를 신라기, 935년부터 고려 말까지를 고려기로 편찬하였다.

[오답 피하기]

- ② 신이사관을 바탕으로 한 대표적 역사서는 일연이 저술한 『삼국유사』이다.
- ③ 단군 조선에서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영사체(시가)' 형식으로 정리한 것은 『동국세년가(세종)』이다.
- ④ 『동국통감』은 편년체의 형식으로 역사를 서술하였다.

11. 정답 ③

[자료 분석]

(가)에 해당하는 제도는 과전법이다. 도평의사사의 건의(고려 후기에 제정), 18파로 나누어 토지를 지급한 것 등을 통해 이를 알 수 있다.

[정답 해설]

- ㄱ. 과전법에서 수조권을 지급받은 전주는 전객에게 토지 1결당 생산량의 10분의 1인 최고 30두를 전조(田租)로 징수하였다.
- ㄴ. 과전법에서는 전·현직 관리 모두에게 토지를 지급하였다.
- ㄷ. 과전은 급전자가 죽은 뒤에도 그 아내나 자식에게 수신전·홀양전이라는 명목으로 계속 지급되어 사실상 세습이 가능했다. 수신전은 자식이 있는 아내에게는 과전의 전부를, 자식이 없는 아내에게는 그 3분의 1(원래는 2분의 1)을 주었고, 홀양전은 5결만 지급하도록 하였다.

[오답 피하기]

- ㄹ. 납조자가 전조를 관리에게 납부한 것은 관수관급제(성종, 1470)와 관련된 모습이다.

12. 정답 ④

[자료 분석]

(가)에 해당하는 인물은 안향이다. 양현고의 재정 부실을 보충하기 위해 섬학전 설치를 건의한 것을 통해 이를 알 수 있다.

[정답 해설]

- ④ 안향은 양현고의 이자로 학교를 운영하고 남은 돈을 박사(博士) 김문정 등에게 주고 이들을 중국으로 보내어 공자 및 제자 70명의 초상을 그려오게 하고 아울러 제기(祭器), 악기, 6경, 제자사서를 구하여 오도록 하였다.

[오답 피하기]

- ① 최충에 대한 설명이다. 최충은 1055년(문종 9) 벼슬에서 은퇴한 후 후진양성을 위해 9재학당(문헌공도)을 설립하였다.
- ② 정몽주에 대한 설명이다. 그는 『주자가례』에 따라 삼년상

을 실행했으며, 성리학에 대한 조예가 깊어 그의 스승이었던 이색은 그를 ‘동방 이학의 원조(비조)’라고 표현하였다.

이색이 그를 자주 칭찬하여 말하기를, “정몽주가 이학(理學)을 논하는 것은 황설수설하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성리학의 조종[東方理學之祖]’이라고 추앙하였다. - 고려사 -

③ 이제현에 대한 설명이다. 그는 원나라 연경에 설립된 만권당에서 원의 학자(조맹부)들과 교류하면서 성리학 관련 서적을 구해와 이해를 심화하였다. 그는 귀국한 후에 이색 등에게 영향을 주어 성리학 전파에 이바지하였다.

13. 정답 ③

[자료 분석]

ㄱ은 강화도, ㄴ은 청주, ㄷ은 장흥, ㄹ은 강릉에 해당한다.

[정답 해설]

ㄱ. 최우는 강화도에 대장도감을 설치하고 재조대장경 조판(1236~1251)을 시작하였다.

ㄴ. 『직지심체요절』은 우왕 때인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금속활자로 간행되었다. 이것은 현존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으로, 현재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다.

ㄷ. 도의는 전남 장흥의 가지산 보림사에서 가지산파를 개창하였다.

[오답 피하기]

ㄹ. 요세는 강진 만덕사(백련사)에서 백련 결사를 제창하였다. 자신의 행동을 진정으로 참회하는 법화 신앙에 중점을 둔 백련 결사는 정토왕생을 중시하며 보현도량을 개설하였다.

14. 정답 ②

[자료 분석]

(가)는 정약용의 여전론, (나)는 이익의 한전론에 대한 내용이다.

[정답 해설]

② 다산 정약용은 정전론(井田論)을 제시하였는데, 구획이 가능한 곳은 정자(井字)로, 불가능한 곳은 계산상으로 구획한 뒤 노동력의 양과 질에 따라 토지를 차등적으로 분급할 것을 주장하였다.

[오답 피하기]

①은 유수원, ③은 홍대용, ④는 유형원에 대한 설명이다.

15. 정답 ①

[자료 분석]

(가)에 해당하는 전쟁은 러·일 전쟁이다. 러·일 전쟁은 1904년 2월부터 1905년까지 전개되었다.

[정답 해설]

② 일본은 러·일 전쟁 중인 1905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통해 일방적으로 독도를 일본 시마네 현에 편입시켰다.

③ ‘재정 및 외교 고문 용빙에 관한 한·일 각서’는 1904년 8월 체결된 제1차 한·일 협약을 의미한다. 이 협약의 체결로 대한제국의 재정 고문에 메가타, 외교 고문에 스티븐스가 임명되었다.

④ 일본은 러·일 전쟁 중인 1905년 7월 미국과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맺고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받았다.

[오답 피하기]

① 러·일 간의 전쟁 분위기가 고조되자 대한제국은 전쟁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 러·일 전쟁 직전인 1904년 1월 국외 중립을 선언하였다.

16. 정답 ④

[자료 분석]

(가)에 해당하는 법은 농지개혁법이다. 제정 시기(1949년 6월), 농지 분배 등의 내용을 통해 이를 알 수 있다.

[정답 해설]

ㄱ. 농지개혁법의 제5조에는 ‘법령급 조약에 의하여 몰수 또는 국유로 된 농지’, ‘소유권의 명목이 분명치 않은 농지’는 정부에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ㄴ. 농지개혁법의 제5조에는 ‘농가 아닌 자의 농지’,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 ‘본법 규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농지’ 등은 적당한 보상으로 정부가 매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ㄷ. 농지개혁법의 제15조에는 ‘분배받은 농지는 분배받은 농가의 대표자 명의로 등록하고 가산으로서 상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ㄹ. 농지개혁법의 제3조에는 ‘본법에 있어 농가라 함은 가주 또는 동거가족이 농경을 주업으로 하여 독립생계를 영위하는 합법적 사회단위를 칭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7. 정답 ②

[자료 분석]

(가)에 해당하는 신문은 황성신문이다. 대황제 폐하(대한 제국 수립 이후에 창간), 국한문 혼용 등의 내용을 통해 이를 알 수 있다.

[정답 해설]

ㄱ. 황성신문은 1910년 경술국치 이후 강제로 한성신문으로 이름이 바뀌어 9월 14일(제3470호)까지 발행되다가 결국 문을 닫았다.

ㄴ. 황성신문은 1898년 9월 5일 사장 남궁억, 총무원 이수연 등이 국민지식의 계발과 외세침입에 대한 항쟁의 기치 아래 지금의 서울 광화문에서 창간하였다. 황성신문은 유교 구신론을 주창하였으며 구분신참의 점진적 개혁을 주장하였다.

[오답 피하기]

ㄷ. 만세보에 대한 설명이다. 만세보는 국한문 혼용체를 사용하였으며 여성 교육과 여권 신장에 관심이 있었다. 또한 일진회의 반민족적 행위를 공격하는 논조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ㄹ. 제국신문에 대한 설명이다. 이 신문은 개화(開化)의 가장 좋은 수단을 신문이라고 생각하고 민족적인 자주정신의 배양과 대중의 지식계발이라는 창간 취지 아래 중류 이하의 민중 및 부녀자를 그 대상으로 하였다.

18. 정답 ②

[정답 해설]

(가) 혁신의회는 3부 통합 운동의 결과 1928년 북만주에서 조직되었던 독립 운동 단체이다. 이 단체는 1930년 한국독립당으로 개편되고 그 아래에 한국독립군을 결성하였다.

(나) 조선민족전선연맹은 1937년 조선민족혁명당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계열의 정당이 연합해 결성한 단체이다.

(다) 조선 의용대는 1938년 중국의 한커우[漢口]에서 김원봉을 중심으로 창설된 무장 부대이다. 조선 의용대는 중국 관내 최초의 한국인 무장 부대로서 일본군에 대한 심리전이나 후방 공작 활동을 전개하여 많은 성과를 올렸다. 중국 국민당 정부가 항일 투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조선 의용대 일부는 중국 공산당 세력이 대일 항전을 벌이고 있는 화북 지방으로 이동했으며, 김원봉 등 일부 대원은 한국광복군에 합류하였다.